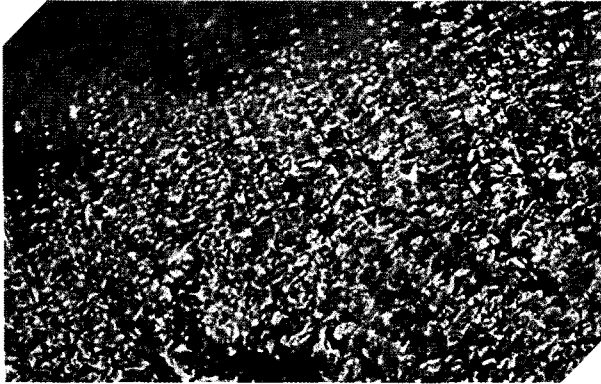


층층이 달린 꽃송이 따라 은은한 향기

국립수목원 박사 | 이유미



가장 오래도록 풍성하게 나무 가득 핀
꽃 구경이 가득한 나무는 무엇일까요?

봄이면 벚나무, 개나리, 진달래 꽃
보다 먼저 꽃을 한껏 피워내는 나무
들이 떠오르겠지만 화무십일홍이란

말에 걸맞게 대부분 꽃이 피는 기간이

유한한 경우들이 많답니다. 꽃도 많고 오래오래 피어 있는 나무를 고르려면 뜻밖에 가을에 꽃이
피는 층꽃나무를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에게 이렇듯 특별한 장점을 가지 나무로 기억되지 못하고 이유는 자생지가 남쪽에
한정되어 있고, 아직 곁에 두고 키우는 이들이 많지 않아 소문나지 않은 까닭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미래에 더욱 각광받을 수 있는 나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나무같은 풀이 있고, 풀같은 나무가 있는데 이 층꽃나무는 정말 풀같습니다.
자그마한 포기를 만들면서 줄기 가득 꽃송이들이 달려 꽃만 보여서 그러한가 보다 싶기도 하지만
그 생태를 보면 기후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면 겨울동안 풀처럼 지상부가 죽어버리므로 그리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자라는 시골에서는 '나무'라고 붙여 부르는 정식이름보다는
층꽃풀, 난향초와 같은 풀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키가 아주 작습니다. 허벅지 높이정도 자라니까요. 잎은 마주 납니다. 긴 타원형이고 길이는 2.5~8cm정도 되며 가장자리엔 뾰족하지 않은 톱니가 있습니다. 잎의 앞뒤 모두 특히 뒷면에 털이 많이 있어 언뜻 보면 뾰얏게 보입니다. 꽃을 보면 왜 층꽃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잎이 나는 겨드랑이 부근에 작은꽃들이 나오며 달리는데 그것도 한 무더기씩 층층이 층을 이루어 달리기 때문이다. 한 20~30송이 정도가 한 층에 모여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조건만 좋으면 20~12층 정도로 많이 달리기도 합니다. 꽃은 물론 식물체 전체에서 은은한 향기가 정말 매력적인 장점입니다.

영어로는 블루 스피라에아(Blue Spirea) 즉 푸른 조팝나무라는 뜻입니다. 식물학적으로는 조팝나무와 전혀 무관하지만 줄기 끝에서 층층이 꽃송이들이 달려 마치 꽃으로 만든 방망이 혹은 휘어지는 채찍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용도는 정원이나 가로 화단에 심는 것입니다. 층꽃나무를 많은 면적 균식해 놓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게다가 한번 균락을 이루어 심어 놓으면 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나비와 벌들이 잘 찾아옵니다. 그래서 밀원식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층꽃나무는 꽃이 여름에 피기 시작하여 가을 까지도 이어지는 아주 긴 개화기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개발할만한 가치가 있는 재료입니다. 이때 같이 꽃이 피는 구절초류와 같은 것으로 색을 배합하여 식재하면 더욱 화려한 화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꽃이 달린 부분이 길기 때문에 꽃꽂이 용으로 잘라 쓰기에도 적합합니다. 한방에서는 난향초(蘭香草)라고 하여 약으로 쓰입니다. 바람을 들게하고 습한 기운과 가래를 없애는 등의 효능이 있어서 감기로 열이 날 때, 류머티즘에 의해 뼈가 쭈실 때, 백일해, 만성기관지염, 생리불순, 산후에 치료, 습진 등 아주 여러 증상에 처방합니다. **山林**